

# 동북지역출신 바링허우세대에 대한 사례연구\*

— 료녕성 선양, 잉코우 두 도시를 중심으로

형요\*, 원재연\*\*

## <목 차>

1. 서론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4. 심층면접에서 드러난 현실인식과 지향성
  - 4.1 불확실성
  - 4.2 지역성
  - 4.3 전통성
  - 4.4 안전지향성
5. 결론

## 1. 서론

중국 사회에서 “바링허우”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대중의 주목을 받아왔다. 1970년대 개혁개방 이후 ‘1가구 1자녀’라는 산아제한 정책의 첫 번째 세대로 태어난 그들은 집안의 유일한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함으로써 “샤오 황띠”(小皇帝), “샤오공주”(小公主)라는 별명으로 불렸다(風笑天, 2004). 그리고 고등교육 확대 정책에 의해 “바링허우”는 문혁 등 개혁개방이전 부모세대가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대학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sup>1)</sup> 또한 언론

\* 제1저자. 延世大學校 社會學科

\*\* 교신저자. 延世大學校 社會學科

에서는 “바링허우”에 대해 “무너진 세대”, “엄마 품에서 자란 세대” 라는 수식을 붙이면서, 지나친 자신감과 자기중심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방지고 책임감이 없다고 비난하였다(李春玲, 2013: 83).

중국 개혁개방 이후 태어난 “바링허우”는 “철밥통(鐵飯碗)”이라는 평생직장 제도와 사회주의 복지가 사라진 중국의 사회 변화 속에서 홀로 경쟁해야 하는 운명을 부여 받은 시장화 1세대라고 할 수 있다. 세대적으로 “바링허우”들은 해외에 개방된 사회 환경에서 성장하여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아 자본주의 정신의 경쟁과 이익 추구의 행위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魏水英, 2009:26). 대부분 외동자녀로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성장하며, 온라인 교류 수단의 급속한 발전은 “바링허우”들이 자신의 요구와 주장을 더 효율적으로 전파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러한 사회 환경은 “바링허우”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어, 그들은 근대 중국 사회주의 역사의 독특한 새로운 세대로 특징짓는다.

한편 지역적으로 “동북현상”(東北現象)은 중국에서 핵심적인 중공업단지였던 동북지역이 개혁 개방 이후 발전이 지체되면서 경제적 지위가 급속히 하락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지역경제의 불평등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동북지역에서 만연한 실업은 가장 대표적인 동북현상의 특징이다(원재연, 2006: 62). 1979년부터 시작된 중국정부의 개혁개방 정책은 동북지역을 발전 정체 상태로 만들었다. 대규모 국유기업의 경영 적자와 실업은 동북현상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농업 중심의 사회이자 국가 주도의 중공업사회였던 동북지역이 현대적인 공업과 정보사회로 구조 이행할 때 겪게 되는 모순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인류학자 조문영(2012)은 개혁개방 이후 “동북인”이 느끼는 심리적 좌절감에 주목하였다. 조문영은 중국 건국(1949년) 이후 동북이 겪은 흥망의 지역사(地域史)가 사회주의 노동자 계급

1) 중국 인구 조사(中國人口普查)에 따르면, 1990년 제 4차 인구 조사 당시 전국 범위 내 교육 수준은 대학교 이상 학력자가 1422만 명이었다. 2010년 제 6차 인구 조사는 고등 교육을 받은 인구가 8930만 명에 달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를 통해 “바링허우” 세대가 “치링허우” 세대를 대표로 한 기성세대보다 고등교육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의 흥망사와 맞닿아 있다고 하면서, 동북지역은 노동계급의 지역적 표상이라 주장하였다. 국유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대규모 정리해고가 시행되면서 노동자 계급이 ‘국가의 주인’에서 ‘시장경제의 낙오자’로 추락했을 때, ‘동북’과 ‘동북인’(東北人) 역시 자연스럽게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티엔이평(田毅鵬, 2005)의 지역성에 대한 연구는 동북지역에서 공업단지가 건설되면서 단위제가 구축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는 이를 통해 동북지역의 사회적 특성을 “전형적 단위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동북지역은 대형 국유기업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사회 자원을 독점하였고, 개혁개방 정책 이전에 동북지역 사람들이 단위제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경험이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더디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북지역은 시장개혁의 측면에서 낙후된 저발전 사회인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동북지역의 도시 선양(瀋陽)과 잉커우(營口)의 “바링허우”를 주목하면서 새로운 세대연구와 지역연구의 결합을 시도하여 신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질적연구로 접근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단위제, 소농의식, 폐쇄성 등의 이미지로 구성되는 개혁개방이전의 중국이 노동시장, 경쟁의식, 개방사회 등의 이미지로 구성되는 시장화 된 중국과 교차하는 시대적 특징이 지역적으로 발현되는 방식에 있다. 사회주의 정신이 강조하는 안정성과 자본주의 정신이 강조하는 모험성의 충돌은 동북지역 “바링허우” 세대의 현실인식과 그들의 행위 지향성에 반영되며, 이 논문은 미시적인 수준에서 개별 바링허우들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충돌을 어떻게 언술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기존 연구 검토

www.kci.go.kr

“바링허우”는 2001년 작가 풍샤오빙(恭小兵)이 젊은 작가들을 지칭하기 위

해 만든 용어로서, 온라인 칼럼에서 시작되어 다른 영역으로 전파되었다. 현재 “바링허우”는 1980년-1989년 사이에 출생한 신세대 중국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중국 인구 조사(2010)는 1980년대에 태어난 인구수를 2.2억 명으로 추정한다. 1979년 개혁개방과 동시에 시행된 산아제한 정책과 지난 35년 간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온라인 매체를 통한 외래문화의 수입은 “바링허우”의 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1980년 이후 태어난 도시 신생아 중 외동자녀의 비율은 남녀 관계없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두 가구 당 한 가구의 자녀가 독자(獨子)인 것으로, 이전시대와 비교하여 상당히 큰 변화로 부모들은 자녀에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풍샤오편(風笑天, 2004)은 이러한 “바링허우”의 특징을 사회적 배경의 변화와 결합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개혁개방과 산아제한 정책이라는 사회적 환경에서 태어난 외동자녀의 독특한 성격을 중국 사회발전과 연관하여 분석하였다. 동북지역이라는 ‘지역성,’ 즉 지역 사회의 가치관은 “바링허우”에게 사회주의적인 공동체적 의식을 주입하고, 중국 사회의 개방개혁 정책과 바링허우의 ‘세대성’은 새로운 경쟁의식과 개인주의 의식을 고양시키게 되는 것이다.

〈표 1〉 “바링허우” 세대와 기성 세대 비교

|      | “기성세대”<br>(1970년대 ·<br>그 이전 출생) | “바링허우”<br>(1980년대 출생) |
|------|---------------------------------|-----------------------|
| 국제사회 | 산업화 사회                          | 정보화 사회                |
| 중국사회 | 문화혁명                            | 개혁개방                  |
| 문화   | 공동체의식,<br>권위주의                  | 개인주의,<br>자유주의         |
| 경제   | 공유제<br>계획경제                     | 자립화, 경쟁제도<br>소비지향     |

출처: 風笑天, 2004. 《中國獨生子女: 從“小皇帝”到“新公民”》

www.kci.go.kr

세계 환경과 중국내 사회 배경의 차이는 각 세대 간 뚜렷한 성격 차이를 만

든다. 1970년대, 혹은 그보다 이전에 출생한 세대가 산업화와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을 겪은 이후 권위주의와 공동체의식의 영향 하에서 단위제를 선호한다고 한다면, “바링허우” 세대는 정보화라는 국제환경 속에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정신을 배우게 되고 경쟁의식을 갖게 되는, 개혁개방 시기의 대표세대라고 할 수 있다. 앞선 세대들이 개혁개방 이전에 출생하여 계획경제와 단위제를 경험하였지만, “바링허우”는 개혁개방이후 시장체제에서 태어나 현재는 노동시장에 진출한 세대이다. 그 이후 출생한 “조링허우” 세대가 대부분 아직 교육과정에 있는데 비하여, 바링허우 세대는 시장적인 상황을 직접 경험한 세대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중국내 바링허우 연구를 살펴보면, 류위펑(劉玉峰, 2007)은 환경적 요소에 주목하여 “바링허우 현상”을 분석하였다. 그가 보기에 “바링허우”가 살고 있는 세계는 기성세대의 세계와 다르다. 1980년대부터 세계 환경은 양극화에서 다극화로 이행되고 중국내환경은 계획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되기 시작했다. 폐쇄적이었던 중국 사회는 개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젊은 세대의 가치관은 서구 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젊은 세대가 정보사회의 혜택을 누리는 집단으로서, 이들의 인식은 기성세대의 것과 확연히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가오중취엔(高中建, 2011)은 이행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사회 격변 시기가 “바링허우”의 가치 관념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각각 검토하였다. 그는 “바링허우”가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 독립의식, 자유의식과 개인주의의 발전이 “바링허우” 세대의 긍정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실용주의와 공리주의의 강화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약화를 부정적인 특징으로 보았다.

서구 학자들은 “바링허우”가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적 성향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 스타냏(Stanat, 2005)은 대부분의 “바링허우”들은 더 개방적이고 반항의식이 강하며, 개인 중심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는 “바링허우”에게 강한 독립의식과 소비지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무어(Moore, 2005: 357)는 중국의 “바링허우” 세대가 미국의 “밀레니엄세대”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주장한

다. 그는 “바링허우” 세대가 자기만의 스타일을 표현하는 욕망이 강하며 독립 의식, 경쟁의식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이 세대를 “쿨 세대”(Generation Ku (酷, cool))라 칭하였다.

“바링허우”에 관한 선행 연구는 중국의 지역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리위펑(李偉峰, 2007)은 농촌지역 “바링허우” 집단은 주류 사회에 의해 외면당해왔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농촌 지역 참여관찰을 통해 정부와 사회는 농촌 지역 “바링허우”에게 더 좋은 성장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바링허우”들은 보다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면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바링허우” 연구에 관한 대표적인 국내 학자로는 이응철(2011)과 조문영(2012)을 들 수 있다. 이응철과 조문영은 각각 상하이(上海)와 하얼빈(哈爾濱)의 “바링허우”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응철은 “바링허우”의 소비 행위 형태와 특성을 분석하고자 중국에서 가장 개방적인 도시인 상하이를 연구 지역으로 선택하고, 연구 대상을 도시 중산층 화이트칼라로 한정하였다. 이응철의 논문에서 소비행위를 통해 표현된 상하이 “바링허우”의 특징은 그들이 명품을 구매하는 소비지향성, 자유와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욕구를 가졌다는 것이다.

조문영은 중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빈부격차 현상에 집중하여 개혁개방 정책이 가져다 준 물질적 풍요가 모두에게 분배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조문영은 개혁 개방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하얼빈을 연구 지역으로 선택하여 그 중 저소득층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그들에게 ‘취직’과 ‘주택 구입’이라는 두 가지 화두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조문영은 바링허우들이 가지고 있는 속물성을 발견했고 실용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속물성의 역사적 근원과 문화적 의미를 밝혔다. 조문영이 발견한 “바링허우”의 특징은 그들이 자유보다 안정된 삶을 갈망하고, 부모세대가 처한 계획경제 시기를 그리워하고 부러워한다는 점이다. 빈곤 2세대인 농민, 노동자 계급의 자녀들이 불평등이 심화된 현실 앞에서 보여주는 무력감은 실용적인 속물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 3.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연구 대상을 개혁개방 이후 고등교육 기회 확대의 혜택을 받은 중국 동북지역의 “바링허우”로 한정하였고, 그 중 료녕성 선양과 잉코우 두 도시지역에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바링허우”는 성장 과정에서 산아제한 정책,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시장화에 따른 경제 발전, 외국 문화 수입 등 사회적 변화로부터 수혜를 입은 시장화 1세대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심층면접 대상들은 이러한 바링허우 세대의 특징을 잘 반영한 도시지역의 고학력 바링허우들로 삼았다. 본 연구에 참가한 연구 참여자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표 2〉 연구 참여자 목록

| 연구 참여자 | 성별/<br>연령 | 학업 경력  | 직장 경력                                       |
|--------|-----------|--|---|
| A      | 남<br>27세  | 선양(瀋陽) 출신<br>다롄(大連) 모 대학교<br>화학전공 학사 졸업<br>미국 모 대학교 화학전공<br>석·박사과정 | 유학생   |
| B      | 남<br>26세  | 선양 출신<br>선양 모 대학교 한국어전공<br>학사 졸업                                   | 선양 고궁 경찰서<br>베이징(北京) 모 대학교<br>도서정보전공 대학원 입학 |
| C      | 남<br>28세  | 선양 출신<br>다롄 모 대학교<br>해사(海事)전공 학사 졸업                                | 모 국제 무역회사 선원                                |
| D      | 여<br>27세  | 선양 출신<br>선양 모 대학교 한국어전공<br>학사 졸업<br>한국 모 대학교 경영학전공<br>석사과정         | 유학생   |

| 연구<br>참여자 | 성별/<br>연령 | 학업 경력   | 직장 경력  |
|-----------|-----------|---|--|
| E         | 남<br>28세  | 잉커우(營口) 출신<br>랴오양(遼陽) 모 전문대학<br>졸업                        | 잉커우에서 창업<br>광저우(廣州)에서 창업                                     |
| F         | 여<br>26세  | 잉커우 출신<br>선양 모 대학교 인적 자원<br>관리 전공 학사 졸업                   | 선양 모 민영 보험 회사<br>모 국유 은행 잉커우 지점                              |
| G         | 여<br>26세  | 선양 출신<br>상하이 모 대학교 금융전공<br>학사 졸업                          | 모 외자 은행 상하이 지점   |
| H         | 여<br>28세  | 선양 출신<br>선양 모 대학교 한국어전공<br>학사 졸업                          | 선양주재 한국 영사관<br>구매 대리   |
| I         | 남<br>26세  | 허난성(河南省) 출신<br>다롄 모 대학교<br>학사 졸업                          | 선양 자영업자  |
| J         | 여<br>27세  | 선양 출신<br>선양 모 대학교 회계전공<br>학사 졸업<br>호주 모 대학교<br>회계전공 석사 졸업 | 친척이 운영하는 호주 모 회사<br>팀장                                       |
| K         | 여<br>26세  | 선양 출신<br>선양 모 대학교 영어전공<br>학사 졸업                           | 푸순(撫順) 모 전문대학 영어<br>강사                                       |
| L         | 여<br>28세  | 선양 출신<br>선양 모 대학교 항공 서비스<br>전공 학사 졸업                      | 마카오 모 외자 항공 회사<br>중국 모 국유 항공 회사                              |
| M         | 여<br>27세  | 선양 출신<br>선양 모 대학교 한국어전공<br>학사 졸업                          | 선양 모 한국 기업<br>민영 기업 무담보 소액 대출<br>대리                          |
| N         | 여<br>30세  | 잉커우 출신<br>선양 모 대학교 동식물 검역<br>전공 학사 졸업                     | 베이징에서 일하다가 잉커우<br>모 경찰서 비정규직으로<br>일하면서 공무원 시험 꾸준히<br>준비하고 있음 |

| 연구 참여자 | 성별/연령    | 학업 경력  | 직장 경력                          |
|--------|----------|--|--------------------------------|
| O      | 남<br>28세 | 잉커우 출신<br>지린 모 대학교 컴퓨터 기술<br>전공 학사 졸업          | 상하이에서 자유직업                     |
| P      | 남<br>26세 | 선양 출신<br>선양 모 대학교<br>전기전력 전공 학사 졸업             | 신민(新民) 현(縣) 전자전력<br>관리국        |
| Q      | 남<br>26세 | 잉커우 출신<br>선양 모 대학교 한국어전공<br>학사 졸업              | 베이징 모 외자기업                     |
| R      | 여<br>30세 | 선양 출신<br>선양 모 대학교 국제관계<br>전공 학사 졸업             | 선양 모 국유 백화점 행정직                |
| S      | 남<br>26세 | 잉커우 출신<br>선양 모 대학교에서<br>건축전공 학사 졸업하고<br>대학원 입학 | 석사 과정                          |
| T      | 여<br>31세 | 선양 출신<br>선양 모 대학교<br>회계전공 학사 졸업                | 모 자영 보험 회사<br>선양 퇴임 간부 관리국 공무원 |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료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중국 료녕성 소재의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도시 “바링허우”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획득되었다. 연구 참여자 중 남성이 9명, 여성이 11명이었으며, 지역별로는 료녕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에 속하는 선양(瀋陽)시 출신이 14명으로 주된 연구대상이며, 중소도시에 속하는 잉커우(營口)시 출신이 6명으로 보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바링허우에 대한 과도한 일반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동북지역 중 료녕성의 20명의 심층면접으로 그들의 상황과 위치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례연구를 지향한다. 이를 통해 기존연구들이나 언론에서 제시하는 바링허우 세대에 대한 과도한 일반화를 극복하여 그들의 다양한 성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제1저자가 연구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동북지역 출신의 “바링허

우” 세대라는 점은 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제1저자는 질적연구방법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당사자 연구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대상인 동북출신의 바링허우 세대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심층면접을 통한 1차자료를 확보하였다. 제1저자는 연구대상과의 삶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들의 실제적인 삶의 상황, 그 자연스러운 일상에 대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연구자가 연구대상과 동일시할 수 있으며 감정이입이 가능하다는 점은 본 논문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교신저자 역시 2000년부터 중국 동북지역에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왔으며, 논문작성에서 글쓰기와 분석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저자들은 심층면접 중간중간마다 매주 모임을 하며 자료를 정리, 분석,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모임을 통하여 심층면접의 방향, 추가할 질문, 참고문헌 보충 등을 의논하였으며, 본 논문의 글쓰기는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양적인 지표로 환원하기 어려운 바링허우 세대의 체험을 이해하고자 하여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또한 제한된 자료로서 바링허우에 대한 지나친 일반화를 경계하며 그들이 가진 다차원적인 특징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심층면접을 마친 후 추가적인 질문이 생길 경우, 전자우편이나 중국의 인터넷 메신저(qq)를 통해 간접적인 대면 방식의 보충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량은 면담 녹음 파일 약 150분, 필기 기록 87장이다. 본 논문은 심층면접과 더불어 중국의 언론 매체, 국가 통계 등 다양한 2차 자료들을 보충자료로 사용하였다.

심층면접 참가는 철저히 본인의 동의 아래에 이루어졌으며, 면접의 내용은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라는 이해를 구하였다. 연구에서 사생활 관련 정보의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알파벳순으로 부여하였고 관련된 기업이나 학교 등의 명칭도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심층면접에 기반한 연구결과 분석은 다음 장에서 정리하였다.

## 4. 심층면접에서 드러난 현실인식과 지향성

심층면접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양, 잉코우 지역 “바링허우” 사례의 경우 대부분 불확실한 시대상황에 대한 소외감과 무력감을 토로하며, 이는 그들의 언술 속에서 “동북”이라는 지역성과 연관되어 이야기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심층면접은 단순히 미시적이고 주관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배태되어 있는 사회성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다(이희영, 2005; Burawoy, 2009).

본 논문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특징들은 흔히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바링허우는 “샤오황띠”라는 새로운 특권세대라는 것과 구별된다. 그들의 현실인식에서 불안감, 소외감, 그리고 무력감이 드러났으며 더불어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는 전통지향성과 안전지향성이 나타났다. 물론 본 연구도 진행이전에는 바링허우가 시장화/현대화/세계화 1세대이기에 개인주의적이고 도전지향적일 수 있다는 가설에서 출발하였으나, 이것이 단면적인 선입견이고 과도한 일반화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바링허우”의 성격에 대한 다면성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그들을 단순히 개인주의적이고, 시장지향적이라고 이해하는 기존 통념들이 다분히 일면적이라는 한계를 가지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4.1 불확실성: 소외감과 무력감

“다들 우리 “바링허우”보고 행운의 세대라고 불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개혁 개방 시대에서 성장한 것은 별로 부러워할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구세대와 신세대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H, 여, 28세)

“우리는 전통을 잃어버린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서구적인 것도 아니고, 국가든 개인이든 적절한 위치를 찾기가 어렵죠.” (P, 남, 26세)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다 왔는데, 그 때부터 공무원 직업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를 다녔을 때 “열등생”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친구들이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기 회사를 운영하거나 남방에서 장사로 돈을 벌고 있어요.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슬픈 감정이 들었어요. 학교에서는 내가 우수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돈 번 친구를 부러워만 하는 신세네요. 순간 내가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P, 남, 26세)

심층면접 과정에서 대부분의 바링허우들은 개혁개방이후 상대적으로 소외된 동북지역의 저발전과 국유기업의 개혁 등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심각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토로하였다. 개혁개방이후 시장화 1세대이지만, 그 혜택을 얻기보다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동북지역 “바링허우”들은 불확실한 방향과 혼란을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황제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거지처럼 살고 있어요. “바링허우”들은 아주 부잣집 출신인 아님 이상, 웬만하면 다 “집의 노예”예요. 심지어 “집의 노예”가 될 자격도 없어요. “바링허우”가 “베이상광”에서 정착하려면 온 가족이 몇 십 년 동안 빚을 지고 살아야 돼요. 작은 도시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돈을 벌 수 있지만 대도시에서는 임대할 수밖에 없어요. “베이상광”에서 결혼도 못하고 오히려 부모에게 걱정거리가 되죠.”(O, 남, 28세)

O의 면접 사례에서 보여 지듯이, 그는 “바링허우”가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적 풍요의 수혜자라는 것을 부정한다. 수혜자가 된 바링허우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그들 또한 동북지역이 아닌 베이상광 지역에 있다는 것이다. 베이상광에 진출한 동북지역의 “바링허우”들 역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보다는 오히려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였다. 상대적으로 저발전 된 동북지역을 떠나 보다 발전된 대도시인 베이상광에서 도전과 성장을 추구하였지만, 그곳에서 조차 차별과 편견을 받는 현실에서 무력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고 방황한다.

기성세대에 비해 높아진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유학 혹은 대학원 진학조차 안정된 직장과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바링허우”들 대부분에게 고등교육은 이미 대중화되어 있다. 중국 교육처 통계 수치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인의 해외 유학 인원은 41만 명, 2013년에는 49만 명으로, 증가율이 20%에 달했다. 한국에서 유학중인 연구 참여자 D(여, 27세)는 자기의 유학 경력이 과거만큼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말한다.

“지금은 해외 유학생이 너무 흔해요. 중국 노동시장의 수요와 맞지 않아요. 몇 년 전만해도 해외유학을 갔다 오면 “하이꾸이”(海歸, 해외 귀국파)라고 다들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하이파이”(海待, 해외 유학하고 취직을 못한 채 마냥 기다린다)라고 비웃잖아요.”(D, 여, 27세)

유학과 대학원 열풍은 더 이상 “바링허우” 내 소수 엘리트만의 일이 아니다. “바링허우”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대학에 가자”는 목표로 달려왔지만, 이제는 대학 졸업이 자연스럽게 높은 사회적 엘리트 지위를 보장하던 시절과 상황이 다르다.

“이제는 대학원 졸업이라고 해도 국가 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대학원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렵대요. 저는 대학원이 올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을 알면서 그냥 가고 있어요. 더 나은 길이 없어서요. 아마 3년 뒤에 나와서도 좋은 일을 못 찾을 것 같아요. 고등 교육이 대중화 되어가는 오늘날, 대학생을 더 이상 “텐즈자오쯔”(天之驕子, 하나님의 아들, 엘리트)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어요.”(S, 남, 26세)

S와의 심층면접에서 드러나듯이,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은 “바링허우”들은 스스로를 평범한 라오바썩(老百姓)이 아니라 엘리트집단이라고 여겼는데, 막상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간 후에는 본인이 사회의 하위계층이나 중하위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바링허우”들은 개혁개방이후 출생하여 자본주의의 산

물에 익숙하다고 여겨지는 집단이다. 하지만 이전 시대에는 고등교육의 상징이었던 대학교와 유학 코스로는 현재 더 이상 사회 엘리트 지위를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사회의 기대대로라면 “바링허우”들이 중산층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 그리고 가장 잠재 가능성이 풍부한 집단이 되어야 하는데, 심층면접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런 실마리를 찾아보기 힘들다. 만연된 “졸업은 실업의 상징이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바링허우”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며, 성취감 또한 느끼기 어려운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개방의 심화에 따라 인간관계에서 느껴지는 물질지상주의와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피할 수 없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기차역에서 하룻밤을 잔 것처럼 힘들어요. “내 삶이 농민공의 삶보다 더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뭉비는 지하철에서 빈자리를 위해 싸우는 소위 “화이트칼라”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 인간존엄성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Q, 남, 26세)

Q의 심층면접 사례는 개혁개방시기에 바링허우가 경제적인 풍요를 즐기기 보다는, 초보 경력자로서 느끼는 “하위 계층”이나 “중하위 계층”에 속한 열등감과 소외감을 보여준다.

“우리는 빈곤과 풍요의 맛을 모두 맛보았어요. 다들 우리가 특별한 세대라고 불렀지만, (저는) 제일 평범한 세대라고 생각해요. 젊은 세대가 다양하게 살아야 하지만 모두의 가치관이 똑같아요. 주택, 자동차, 금전, 이 세 가지만 성공을 판단하는 유일한 표준이 되었네요.”(D, 여, 27세)

개혁 개방은 “바링허우”들을 안정된 단위체제에서 체제 밖 시장으로 이동시켰다. 이에 시장 경제 체제에 있는 “바링허우”들은 중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경쟁적인 자본주의체제에 직면하게 된다. 대부분의 심층면접 대상 연구 참여자들은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취업에 대해 자신감 부족을 호소하였다. 현재 21세기 중국에서는 자본주의적인 물질적인 성공이 가치판단의 표준으로 부상된 까닭에 자본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바링허우”들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

위 역시 매우 낮게 평가한다. “미래에 대해 아직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모님 생각 말고 내 생각은 잘 모르겠다.” 등, 심층면접을 통해서 “바링허우”가 흔히 쓰는 표현은 “모르겠다.”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동북지역 “바링허우”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와 소외감, 무력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4.2 지역성: 베이상광(北上廣)과의 구별

“바링허우”로서 얻을 수 있었던 고등 교육의 기회의 확대와 글로벌화의 열풍으로 인해 동북지역의 “바링허우”들은 교육을 위해서 혹은 취직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바링허우”들은 동북지역 안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집단주의적 공동체 의식이 통용되지 않는 새로운 ‘외부 세계’를 경험한다. 이러한 새로운 ‘외부 세계’에서의 경험은 고향인 동북지역에서 느꼈던 경험과 차별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바링허우”의 지역적 특징을 되새기는 기회가 된다.

본 논문의 연구자들이 심층면접 대상자들에게 “동북 사회 혹은 동북인의 특징”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참여자들은 주로 타 지역과 구별되는 ‘차이’를 통해 동북 사회를 설명하였다. 그들은 “동북 사람은 ~~한데, 타지사람은 ~~하다.”식의 어법을 구사하였다.

“동북인은 철밥통을 좋아해요. 튼튼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광둥 사람들은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요.”(E, 남, 28세)

“선양은 “베이상광” 보다 현대적이지 못하지만, 보금자리처럼 느껴져요.”(T, 여, 31세)

www.kci.go.kr

공통적으로 동북지역의 “바링허우”들에게 동북지역은 “인정(人情)이 있고 따

뜻한” 매우 인간적인 공간인 반면 “베이상광”(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역은 “차갑고 냉정한 공간”으로 묘사된다. “바링허우”는 고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귀속감과 타지에 가서 느끼는 소외감을 비교하면서 지역의 특징을 대조적으로 묘사한다.

“남방 사람은 썸을 잘 해요. 남방 사람들이 항상 동북인을 보면 (착해서) 바보라고 고들 해요.”(O, 남, 28세)

“상하이 사람들은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세계 경제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외지에서 온 사람과 만날 때 인사하기 전부터 지역적 편견을 갖고 있어요. 많이 차가워요.”(G, 여, 26세)

“베이징의 변화가는 사람을 도취하게 만들고, 방향을 잃게 만들어요. 여기서는 집(房子, 물리적인 의미의 ‘집’)을 살 수 있더라도 가정(家)이 아니에요. 가정(家)에서만 안심할 수 있어요.”(Q, 남, 26세)

연구 참여자 Q가 말하는 ‘집’이란 단순한 물질성이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성이 있는 공간으로써의 가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베이징에서는 물리적 공간으로써 주택을 구매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본인의 가족이 없는 까닭에 결코 ‘가정’이라 할 수 없다. Q는 현재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대학교 후배와 함께 방 한 칸을 임대하고 있는데, 퇴근 후에 후배에게 “사는 곳으로 돌아가자”나 그냥 “돌아가자”라고 말하지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냥 사는 곳이지, 결코 집이 아니에요.” “여기서 매일 생활하고 있지만 매일 ‘집’으로 돌아가지는 못해요.” 등 Q가 집에 대해 가지는 생각은 매우 복잡하다. 베이징은 비록 7년 동안 살아 왔던 지역이지만 결코 자신의 ‘집’이 될 수 없으며 ‘집’이란 곳은 1년에 춘절 때 한 번만 돌아가고 5일밖에 머물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G는 또한 음식 비유를 통해 동북지역의 특징을 언급하였다. 그에 따르면, 베이징 요리는 “제왕(帝王)”의 느낌이 있고 광둥 요리는 “상인(商賈)”의 느낌이

있는 반면, 동북 요리는 “백성(百姓)이 매일 먹는 향토적인” 느낌이 있다고 한다. 상하이에서도 동북식당이 생겼지만 도시환경이 다르니까 동북음식이라고 고향과 같은 느낌을 맞볼 수 없다고 한다. “베이상광”은 이런 점에서 고향, 감정이 결여된, 경쟁적이며 외롭고 힘든 공간으로 묘사된다.

심층면접을 분석한 결과 “바랑허우”들은 “베이상광”을 언급할 때, 자본과 관련된 이미지들은 주로 “베이상광”에, 자본과 관련이 없는 이미지들은 주로 동북지역에 연관시킨다. 이는 동북 “바랑허우”에게 있어서 지역의 경제적 발전 수준이 지역의 위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됨을 의미한다. 건국 초기의 상대적인 경제적 번영과 현재의 저발전이라는 상황 때문에 동북지역 “바랑허우”들은 현재의 고향을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지역이라고 인식한다.

“2년 동안 베이파오족(北漂族, 꿈을 실현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몰려드는 중국의 지방 청년)으로 생활을 하면서 억울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평소 6시에 퇴근하는데 봄비는 지하철에서 있다 보면 1시간이 훌쩍 가고 8시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이미 저녁 먹고 산책을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네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억울해요. “내가 어찌다가 은퇴한 노인들보다 더 슬픈 삶을 살지?”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원하는 삶은 아니에요.”(G, 여, 26세)

연구 참여자 G는 대도시인 상하이와 자신의 현재 상황을 구분 짓는다. G에게 있어서 대도시는 물질적인 자원이 풍부한 곳이지만, 이곳은 정착의 장소가 아니라 성공을 위해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에 불과하다. 상하이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워갈 수 있을지 모르나, 이곳에 있는 풍요는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요즘 “베이상광”에서 탈출하자”라는 화제가 대세죠. 30대가 다 된 우리에게는 청춘이 남아있지 않은데, 아직 정착하지 못한 상태라서 두려움을 느껴요.”(J, 여, 27세)

www.kci.go.kr

의)에서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就近城鎮化”(가까운 곳에서 도시화를 실현하다)를 제안했다(《동광왕》(東方網) <國務院總理政府工作報告文字實錄> 참조). 이것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중소 도시에서 정착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으로써 도시 인구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2014년 “중국 경제생활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설 연휴 당시 “베이샹광”에서 고향으로 귀향한 4,907만 명 중 1,070만 명이 명절 이후 다시 “베이샹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베이징은 18%의 귀환 비율을 차지하여 가장 탈출하고 싶은 도시로 선정되었다.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대학 졸업생과 신세대 농민공 등 대부분 초기 경력자들이었다 (CCTV1 저녁 뉴스, 2014년 3월11일).

그러나 동북지역의 “바링허우”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연구 참여자 Q(남, 26세)는 자신의 일기를 보여주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돌아갈 수 없는 모순된 심정을 표현하였다.

“고향은 무서운 악마이다. 항상 야간에 출몰하여, 내 머릿속으로 난입한다. 내 아름다운 꿈을 깨고, 쌓아왔던 방위선도 순간에 깨고, 내 눈물이 베개를 적신다.  
20140118 새벽에”

Q는 고향에 가족과 친구가 많아서 인간미가 넘친다고 하면서도, 아무 성취도 없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탓에 고향으로 갈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베이샹광’이든 중소 도시이든 우리가 도시를 선택하는 것보다 도시가 우리를 선택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어디 있었어요?”(S, 남, 26세)

“바링허우”의 취업 지역 선택 역시 “바링허우” 자신에게 달려 있다기보다는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영향 받게 된다. 직업을 수요에 따라 평균적으로 분배하는 과거의 취업 제도가 없어지고 ‘능력’에 따라 경쟁을 통해 선발

하는 시장체제에서 대도시로 가기도, 고향에 남기에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여정 속에서 “바링허우” 세대에게 남은 것은 결국 막혀버린 진로와 불확실한 미래이다. 연구자들이 만나본 동북지역의 “바링허우”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찾으면서도 현재 불안한 삶을 못 견뎌하며 소외감과 무력감을 드러냈다.

### 4.3 전통성: 집단주의, 미엔쯔, 관씨

동북지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늘이 무너져도 같이 죽자”(天塌下來一起死)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동북지역 사람들이 다분히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선호함을 보여준다.

“우리(동북인)에게 있어서 삶의 코스는 누구나 고등학교-대학교-취업-결혼인데, 남방 사람들 중에는 공부가 자기한테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만두고 장사하는 친구가 정말 많아요.

(중략) 얼마 전에 (잉커우에서) 낚시 용품을 판매하는 것이 큰 인기였어요.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낚시 용품 상가가 연달아 생겼어요. 시장이 이렇게 작은데 다들 같은 것을 팔면 당연히 하루아침에 망하죠. 연해 지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소규모로 각자 다른 장사들을 해요.”(E, 남, 28세)

“대학교 4학년이었을 때 과에서 친구들 절반이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물론 붙은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해요. 저도 미래에 대해 정확한 계획이 없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걸 보니까 해볼까 한 것이예요”(N, 여, 30세)

N은 친구들이 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니 자기도 시험을 봤고, E는 낚시용품의 사례로 동북사람들의 집단주의적 성향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부모와 친척들이 보기에 대학생은 지식이 있는 고학력 엘리트인데 어떻게 체면 있는 일을 찾지 못하냐고 생각해요. (제가 취직을 잘 못해서) 친척들 앞에서 저와 부모님 모두 체면을 못 지킬 것 같아요.”(Q, 남, 26세)

Q에 따르면, 친척들 앞에서 자기와 자기 집안의 “체면”(面子, 미엔쯔)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선택’은 개별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집단주의적인 맥락에서 “체면”과 “눈치”의 문제이다. 새로운 신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체면이나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발견된다.

주지하다시피 “관씨”란 중국 사회 특유의 인간 교류 방식이다. “관씨”는 일반적으로 “특수한 인간관계(special relationship)”로 간주된다(Guthrie, 1998; Yang, 2002). “관씨”는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원을 이용해 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쓰는 “인맥”, 혹은 “연줄”과 유사한 것으로 중국의 “관씨” 역시 혈연과 지연 등 1차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관씨”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에서는 개별적인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관씨”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동북지역이 중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씨”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관씨”를) 좋게 생각하든지 나쁘게 생각하든지 이것은 바로 중국의 문화라는 점을 인정해야 돼요. “관씨”는 깊은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중국에서 어디를 가도 존재하고 있어요. 동북지역이 연해 지역보다 훨씬 “관씨”가 더 강하고 깨기가 어렵죠.”(I, 남, 26세)

“가족들은 제가 광둥(동남 연해 지역)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많이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남방 지역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남방에서는 “관씨”를 안 보고 능력만 봐요.”(E, 남, 28세)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동북지역의 행위자는 “관씨”(關係)의 영향력에 더 많이 의존하는 편이라고 인식하며, 이러한 특징은 새로운 세대에게도 강하게 각인되는 경향이 있다. “베이상광”으로 진출한 동북지역의 “바링허우”들은 고정된 지역 관씨망이 없어 법과 개인의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훨씬 개인적이고 외로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동북지역은 행위자 간에 오래 전부터 형성된 끈끈하고 친밀성이 강한 다분히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존

재하나, “베이상광”으로 진출하면 행위자 간에 거리감이 있고 독립적이고 다분히 시장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게 된다.

“남방지역은 동북과 지역문화가 달라요. 동북지역에서 “관씨망”이 강하거든요. 동북에서는 어떤 일이든 잘 하려면 “관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육아 문제, 교육 문제, 취업 문제, 심지어 가전이나 전자제품 등 비싼 상품을 살 때도 먼저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는 버릇이 있어요.”(E, 남, 28세)

E는 동북지역과 광둥지역의 차이를 “크다”와 “작다”라는 표현으로 구분하였다. “큰” 동북지역은 인색하지 않고 정이 많아 긍정적이지만, 작은 차이를 무시하고 규칙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반면 “작은” 남방지역은 이기적이고 소심하다는 측면에선 부정적이지만, 일을 꼼꼼히 수행하고 원칙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 4.4 안전지향성(safety-first): 시장회피성(market aversion)

“제 부모님은 10년 전에 “하강”(정리해고로 실업한 상황)되었어요. 결혼하려면 남자가 집과 차를 마련해야 되죠. 그리고 나중에 아이의 교육과 부모의 노후 생활도 모두 제가 책임져야 하는데……” (C, 남, 28세)

연구 참여자 C는 집안 형편의 어려움,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저야 하는 책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신세대 “바링허우”라고 할지라도 그 사고 속에는 부모와 가정에 대한 부양과 책임의식이 강하게 자리한다. 이는 동북지역 “바링허우”가 시장에서 모험적인 선택을 하기 보다는 체제 안에서 안정적인 직업군을 선택하도록 만든다. 최근 공무원 열풍은 이러한 “바링허우”의 직업관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성공을 판단하는 요소가 됐죠. 우리 집안만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가치 판단 표준이에요.”(P, 남, 25세)

“저는 한 달에 1200위안(한화 20만원)밖에 못 벌지만 동북인이 다 그렇죠 뭐, 돈대신 안전성을 사는 거죠. 저와 남자친구가 모두 국유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요. 많이 벌 수는 없겠지만 평생 실업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노후 생활까지 보장되어 있으니깐 저희는 이걸로 만족해요.”(F, 여, 25세)

연구 참여자 F는 대학교를 졸업할 당시 채용 박람회를 통해 보험 회사의 일 자리를 찾았으나, 아버지가 국유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관씨”로 취직한 경우다. 물론 보험회사에서는 단기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고용 안정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신세대인 이들도 공무원이나 국유기업 정규직이 되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장회피적 안전지향성 태도는 아래 언술에서도 발견된다.

“바링허우”들이 “체제 안(體制內)”으로 들어가려 하는 이유는 복잡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공무원이 좋다고 해서 강요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이라는 분위기에요.”(N, 여, 30세)

“부모님의 태도가 아주 단호해요. 꼭 “체제 안”에서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정규직이나 공무원 말이죠. 부모님이 보기엔 외자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중소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도 필요 없어요. “체제 밖(體制外)” 모든 직업은 위험을 수반하고 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부모세대에 가장 중요시된 것은 안정적인 복지제도죠. 부모님 보기에 “체제 안”의 일이 아니라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F, 여, 26세)

공무원 인 N의 경우, 자신의 직업에 대해 “부모님이 만족하신다.”는 언급을 자주 하였는데, 정작 자신의 생각이 무엇이나고 물어보면 항상 “잘 모른다.”라고 대답하였다. N의 경우, 취직 시 주변 친척이나 친구 중 “체제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의심 없이 따르거나, 부모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근 만연하는 치열한 공무원 열풍에는 부모 세대의 기대와 “관료”로서 성공하는 것은 우수하고, 사업 등 다른 직업은 위험하다는 시장회피적 직업관이 깔려있다. 이것은 동북지역 부모 세대의 사회주의에 대한 향수, 그 안정성과 현재 시장제도에 대한 불안이 자녀의 안전지향적 가치관으로 재생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동북지역 기성세대가 계획 경제 체제와 단위제 체제에서 습득한 사회주의적 사유 방식이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새로운 세대의 행위 방식에 전승되는 듯하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안정된 삶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본질은 계획경제 체제에서 잔존(殘存)했던 “관본위” 기제 및 국유기업의 안전성에 대한 향수라도 할 수 있다.

2002년에 중앙 정부는 “동북지역 재 진흥”이라는 정책을 통해 동북지역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중공업 중심의 국유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북지역에서 단위제의 이데올로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별히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세대들은 과거의 사회주의 복지체제에 대해 강한 그리움을 표한다. 동북지역 “바링허우”의 부모들은 대부분 국유 기업의 노동자들로서 과거 계획경제 시기의 안정성과 단위복지제도에 대한 미련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그때는 집마다 넉넉하지 않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단위로 찾아갈 수 있어서 든든했어요.”(L, 여, 28세)

동북지역 단위제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와 행동방식은 개혁과 개방이 심화되어 자본주의 성격이 강한 현재에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향에 취직하여 만족감을 느끼는 일부 “바링허우”들은 돈보다 안정을 선호하고 가족 지향적이며 부모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직업 선택 과정에서 동북지역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시장회피적 특징이 판단 근거를 제공한다.

“월급보다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기분이 좋다는 것이예요. 집중해서 일하면 한

달 업무량을 3일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전에 사기업에 일했었는데, 거기는 월말이 되면 매일 밤 8시까지 야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새벽까지 일할 때도 많아요. 지금은 매일 4시 반이 되면 칼퇴근을 해요. 용무를 볼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내일 다시 오라고 해요. 반드시 완성이야 하는 “업무지표”도 없어요. 정말 스트레스 안 받아서 기분이 좋아요.”(T, 여, 31세)

연구 참여자 T(여, 31세)는 보험회사에서 회계사로 4년 동안 일하였다. 그러다가 2013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퇴임간부 관리국으로 옮겨 근무하게 되었다. 한 달 수입은 2000위안(한화 35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스스로가 선양에서 낮은 수입 집단에 속한다고 생각하지만, “힘이 들지 않는 직업”이라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하였다.

T가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된 것은 부모님의 영향이었다고 한다. T의 아버지는 국가 중요 사업 기관에서 일하였는데, 10년 전 사업 기관 제도 개혁으로 인해 정년보다 일찍 조기 정년으로 퇴직해야 했다. 어머니 또한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국유기업 개혁으로 정리해고 되고 말았다.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은 자녀가 공무원이 되어 불안정한 시장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고, T는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내가 공무원이 되고 나서야 부모님이 드디어 미간을 펴고, 아쉬움을 덜었다고 말씀했어요. 아버지는 딸이 공무원이 되니까 이웃의 태도도 변했다고 했어요. 부모 세대가 고생을 많이 했고 손해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안정과 권력을 갈망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요.”(T, 여, 31세)

국유기업의 복지를 누렸다가, 실업으로 인해 시장체제에서 고초를 겪은 부모들을 보고 자란 동북지역 “바링허우”들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부모님의 체제 내 선호의견”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유사하게 대도시에서 취직하는 것과 비교하면 고향에 취직하는 것이 더 좋다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에게 “베이상광”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그만큼의 시장경쟁을 감수해야 하는 곳이기엔 선호되지 않는다.

“졸업하기 전에 “베이상광”으로 갈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베이상광”에 있는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베이상광”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거기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선배들은 농담식으로 이렇게 대답해주었어요. “텐안먼(天安門)을 베이징 말고 어디에서 보니?” “상하이 말고 다른 곳에서 황푸강(黃浦江)을 볼 수 있니?”라고요. 저는 이것이 도시에 대한 집착을 의미한다고 봐요. 그들은 개미들 사이에도 왕이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예요. 이런 저런 기회와 권력, 심지어 몇 백 위안을 얻으려고 친구가 적이 될 정도로 싸우고 또 싸우죠. 자기가 얻은 ‘식량’을 푹푹 숨기고 자본으로 삼아요. 그들은 이걸 ‘분투’(奮鬥, 열심히 사는 것)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분투인가요? 진흙탕에서 자기 살길만 찾는 거죠.”(L, 여, 28세)

연구 참여자 L(여, 28세)은 마카오 소재 항공사에서 일하다가 선양 소재의 중국 항공사로 이직했다. 그는 마카오 소재 항공사에서 보낸 시절에 대해 매일 매일이 “세계 종말”처럼 힘들었다고 말한다.

“많은 돈을 벌어서 소용없어요. 그때의 소비는 그냥 억눌린 심정, 답답한 기분을 해소하려는 거였어요. 외자 기업의 매정한 경쟁과 엄격한 훈련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지금처럼 편안하고 단조로운 직장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을거예요. 지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열심히 돈 벌고 쓰는 일에 기분이 좋아요.”(L, 여, 28세)

과거 국유 기업은 노동자의 삶의 모든 측면을 책임지면서 점차 노동자들의 일과 삶을 결합하는 사회주의 단위의 모습을 형성하였다. 연구 참여자 G는 과거의 단위 제도에 대해 부러움과 동경을 갖는다. 동북지역 “바링허우”들은 시장화의 장점뿐만 아니라, 그 어두운 단면을 모두 경험해 본 세대다. 단위제의 쇠락 이후 이들은 과거를 낭만적인 세상으로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안전 지향적이며 시장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게 한다.

“때로는 “마오 시대”의 “따쉬판(大鍋飯)” 정책을 그리워하기도 해요. 그 때에는 모든 사람의 생활수준이 비슷해서 서로를 비교하는 고민도 없었고 부담도 없었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서 경험을 쌓아야 돼요.”(G,

여, 26세)

개혁개방 정책 이후 취업의 방식은 이제 더 이상 국가가 일자리를 분배해주는 형식이 아니라 구직자가 노동시장에서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장체제에서 희생되었던 부모세대의 어려움을 목격한 이들은 안전 지향적이고 시장회피적인 태도를 나타내곤 한다.

## 5. 결론

“바링허우”란 1980년과 1989년 사이에 태어난 신세대 중국인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들은 산아제한 정책의 첫 번째 세대이자, 개혁개방 정책의 영향 하에서 고등교육을 보편적으로 받은 첫 번째 세대이다. 이들의 출생과 성장은 중국사회에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오늘날 가장 어린 “바링허우”(1989년생)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함에 따라 중국에서는 “바링허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물질적인 풍요와 가족의 보호 속에 성장한 “바링허우” 세대가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담당할 수 있는 세대인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심층면접 자료에 따르면, 연구대상 “바링허우”는 계획경제 아래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주었던 단위제(單位制) 이데올로기를 그리워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소외감, 지역성이라는 현실인식과 전통지향성, 안전지향성이라는 행위 지향성은 연구대상 “바링허우”의 사례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특징이다.

기존 “바링허우”에 관한 선입견은 “바링허우”들을 소비 지향적이고, 개인 지향적이며, 모험을 선호하는, 즉 21세기 중국의 특징을 구체화한 존재, 잠재성이 풍부한 존재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바링허우”의 정체성은 그가

가진 지역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고 지나치게 과도한 일반화는 한계가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바링허우”의 사례들은 동북 선양, 잉kou 등의 지역적 배경으로 인해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특성을 재현하고 있다. 그들은 보다 안정 지향적이고, 사회회피적이며, 전통지향적이며, 체면을 중시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소외감과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 參考文獻 >

- 원재연. 2006. <중국 실업 노동자들의 탈사회주의화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39(2): 45-84.
- 이응철. 2011. <상하이 화이트칼라 “바링허우”의 소비행위와 태도: 소비의 사회적 속성과 새로운 관계의 형성> 《한국문화인류학》 44(2): 139-177.
- 이희영. 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39(3): 120-148.
- 조문영. 2012. <중첩된 시간성과 별이는 협상: 중국 동북지역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속물성에 대한 인류학적 변명> 《한국문화인류학》 45(2): 37-76.
- 홍지혜. 2013. <중국 “바링허우”(80后)세대의 노동시장 적응 유형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郇 正. 2004. <振興東北与振興東北文化> 《社會科學戰線》 2004年第5期, 第133-142頁.
- 風笑天. 2004. 《中國獨生子女: 從“小皇帝”到新公民》(From the spoiled child the new citizen - studies on Chinese only children). 知識出版社.
- 高中建· 孟利艷. 2007. <80 后現象的歸因> 《中國青年研究》 2007年第10期, 第76-79頁.
- 高中建. 2011. <我國“80 后”新生代社會認同研究現狀綜述> 《前沿》 總第298期, 第125-127頁.
- 揭愛花. 2000. <單位: 一种特殊的生活空間> 《浙大學報》 2000年第16期, 第76-84頁.
- 廉 思. 2009. 《蟻族: 大學畢業生聚居村實錄》. 广西師範大學出版社.
- 劉玉峰王云. 2007. <關於80后教育的几点思考> 《新西部》 2007年第5期, 第146-152頁.

- 李春玲. 2013. <80后現象的產生及其演變> 《黑龍江社會學報》 2013年第1期, 第82-88頁.
- 李華松. 2008. <改革開放30年對“80后”特征形成的影響> 《中國青年研究》 2008年第11期, 第89-93頁.
- 李哈斌. 2005. 產業集群與東北產業振興. 經濟學碩士論文, 吉林大學, 東北亞研究院, 區域經濟學.
- 李培林. 2005. 《另一只看不見的手: 中國社會結構轉型》.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 2006. <老工業基地的失業治理: 后工業化和市場化-東北地區9家大型國有企業的調查> 《社會學研究》 2006年第4期, 第1-12頁.
- 李偉峰. 2007. <社會對農村80后的七個誤讀> 《大慶社會科學》 2007年第4期, 第16-26頁.
- 潘石孫世強. 2004. <東北經濟落后原因諸說評析> 《東北亞論壇》 2004年第2期, 第12-18頁.
- 田毅鵬. 2005. 《單位社會的終結: 東北部老工業基地“典型單位制”背景下的社區建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魏水英. 2009. <80后青年的時代特征: 歷史社會化的產物> 《中國青年研究》 2009年第6期, 第14-42頁.
- 衣艷芳. 2006. <東北文化與東北農民性格> 《黨政干部學刊》 2006年第6期, 第11-12頁.
- 鄒麗麗羅元文. 2009. <東北老工業基地失業保險問題研究> 《理論界》. 2009年第5期
- Burawoy, Michael. 2009. 《The Extended Case Method.》 Univ. of California Press.
- Cao, Jiaxue. 2009. <The Analysis of Tendency of Transition from Collectivism to Individualism in China> 《Cross-cultural communication》 5(4): 42-73.
- Guthrie, Douglas. 1998. <The Decline Significance of Guanxi in China's Economic Transition> 《The China Quarterly》 154: 254-282.
- Moore, Robert. 2005. <Generation ku: Individualism and China's millennial youth> 《Ethnology》 44(4): 357-376.
- Pew research Center. 2011. 《The Millennials: Confident. Connected》 Open to Change.
- Stanat, Michael. 2005. 《China's Generation Y: Understanding the Future Leaders of the World's Next Superpower》 New York: Homa & Sekey

Books.

- Won, Jaeyoun. 2004. <Withering Away of the Iron Rice Bowl?: The Reemployment Project of Post-Socialist China>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39(2): 71-93.
- Yang, Mayfair Mei-hui. 2002. <The Resilience of Guanxi and its New Deployments: A Critique of Some New Guanxi Scholarship> 《The China Quarterly》 170: 459-476.
- 《교육처 중국 교육연감》 (教育部中國教育年鑒).
- 《중국 통계연감》 (中國統計年鑒).
- 《중국 인구조사》 (中國人口普查).
- 《중국 종합 사회 조사》 (Chinese General Social Survey, 中國綜合社會調查).
- 《중국 경제 생활 대조사》 (中國經濟生活大調查).
- 《중국 급여백서》 (中國薪酬白皮書).
- 《國際人才藍皮書：中國留學發展報告》
- 《新華網》(신화왕). 2012년1월29일. <外表光鮮難受挫折職場“80后”易成“草莓族”>
- 《戰略網》(전략왕). 2010년4월29일. <汶川地震80后撑起中國脊梁做有担当的一代>
- 《東方網》(동광왕). 2014년3월 5일. <國務院總理李克強政府工作報告文字實錄>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st-80’s generation” in Northeast region in China. The “post-80” generation means the new cohort of the Chinese who were born between 1980 and 1989. The “post-80’s generation” is generally considered as a spoiled generation without maturity, humility and responsibility. They are also regarded as individualistic risk takers. Since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the “post-80’s generation” have been benefited from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enrollment, as the product of “the one child” policy.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st-80’s generation. In comparison with the coastal south region, the northeastern

region owes a more distinguishing feature of the planned economy and the strong legacy from socialism. Shenyang and Yingkou were chosen as the study areas, and with qualitative data, this study tries to offer a new understanding of this generation.

Key words: Post-80's generation, northeastern region, social transition, China, new generation

| 원고접수일        | 심사일정         | 1차수정         | 게재확정         | 출간           |
|--------------|--------------|--------------|--------------|--------------|
| 2015. 6. 30. | 2015. 7. 14. | 2015. 7. 19. | 2015. 8. 14. | 2015. 8. 31. |